

◇ 학회 보고

제 6 회 중국과학사 국제회의

朴 星 來

외국어대

중국의 과학기술사를 주제로 한 이 국제적 모임에 내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년 전 벨기에서 시작하여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을 거쳐 그 여섯번째 모임을 영국에서 열게 된 것인데, 그동안 사실상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내가 참석을 결심한 까닭은 이번으로 중국과학사 회의가 끝나고 그 대신 〈東아시아科學史學會〉를 만들겠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실제로 8월 2일부터 7일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로빈슨 컬리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東아시아 과학, 기술, 의학사 국제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라는 긴 이름의 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번 국제회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풀이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중국과학사 연구의 지도자 노릇을 맡아 왔던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의 90회 탄신을 축하하는 뜻도 겸하고 있었다. 니덤이 그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제3권 끝에 덧붙여 써놓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 자신은 주로 중국과학사 연구에 일생을 바쳤지만, 한국과학사 연구가 동아시아과학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해 왔다. 실제로 그는 한국과학사에도 일부 연구를 해 왔고, 그 결과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출판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書雲觀을 중심으로 한 천문학 연구서 *The Hall of heavenly Recor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한국과학사학회지」10-1, 1988에 필자의 서평이 있음)를 출간했을 정도이다. 또 그의 연구를 위해 시작된 도서관은 〈동아시아과학사 도서관〉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니덤研究所〉라는 이름 아래 독립건물까지 갖게 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니덤研究所가 주관하는 〈중국과학사국제회의〉가 열리고, 중국과학사 대신 동아시아과학사 연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 필연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全相運(성신여대), 송상용(한림대), 金基協(계명대), 南文鉉(건국대), 曹炯鎭(강남대)교수와 내가 참석했고 런던대에서 과학사를 공부하는 조숙경씨가 토론에 참가하여 한국에서 7명이 참가한 셈이다. 영국 43, 중국 25, 대만 5, 미국 19, 프랑스 12, 서독 11, 일본 9명에 이어 비교적 많은 한국 학자들이 참석한 셈이다.

그밖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동독, 홍콩, 스웨덴, 노웨이, 이탈리아, 소련,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에서 1명 또는 몇 명씩이 참가하여 모두 150명 이상이라는 이 회의 역사상 제일 많은 참가자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은 108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송상용교수가 “니덤의 한국 천문학사 연구”, 남문현교수가 “세종 자격루의 12시 보시 장치의 복원”, 김기협교수가 “중국과 한국에서의 실학과 서방 연구”, 조형진교수는 “초기 금속활자의 거꾸집 구조”, 그리고 나는 “조선조 왕들의 건강”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발표는 모두 10개의 분과에서 진행되었고 이들 10개 분과 이외에 특별초청발표가 세 가지 구성되었는데, (1)전통사회에서의 의학의 사회적 조직, (2)고대수학과 사회정치적 관계, (3)식품과학과 영양 등이 그것이었다. 내 논문은 별다른 생각없이 초록을 보냈던 것이 (1)분야의 특별초청 논문을 모으고 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네이산 시빈교수의 주목을

받아 그의 편지를 받고 좀 정신을 차려 글로 급히 써 보내게 되었다. 원래는 초록만 보내고 현장에서 말로만 발표하려는 얇은 피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 시빈교수의 호의(?) 때문에 일이 바빠지게 되었다.

“조선 시대 임금들의 건강”이란 제목의 내 발표는 원래 10여년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심포지엄에서 간단히 발표한 이후 몇 차례 대중적인 강연을 통해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우리말로도 논문으로 쓴 일은 없는 소재이다. 조선 왕조 27명의 왕들의 자식 수와 그들의 수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조선후기 왕실에 심각한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을 것을 예측하는 내 주장은 시빈에게 상당히 흥미있었던 모양이다. 이 특별분과의 사회를 본 시빈은 나를 소개하면서 내 논문에 대해 칭찬을 덧붙여 주었고, 내 발표가 시작하자 휠체어를 탄 니덤교수가 강당에 들어와 제일 앞에서 내 발표를 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뜰에서 만난 일본계 독일 과학사학자 마에야마가 “얼마나 영광인가!”(What an honor!)라는 말을 해 주었을 때에서야 나는 니덤의 존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9년 전인가 보다. 그 때만 해도 공산국가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라면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는 좀 무시무시한 도시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국제과학사회의가 열린 부쿠레슈티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만 해도 81세를 넘은 니덤은 아직 정정했다. 그와 나는 부쿠레슈티의 버스를 타고 회의장을 오가면서 얘기를 나눈 일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젊은 서양 학자들이 서 있는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버젓하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당시의 회의 참가기는 「한국과학사학회지」4-1, 1982에 실려 있음).

1981년 루마니아의 여름, 니덤은 그의 여행에 부인이 아니라 학문의 동반자인 루 케이전(魚桂珍)과 함께였다. 영국인 치고도 체격이 큰 니덤과 중국 여자치고도 작은 루박사가 함께 다니는 것이 우스웠던 기억이 아직 새롭다. 그런데 지난 9년 사이에 그는 작년에 부인을 사별하고 최근에 바로 루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루박사는 이번 회의에서 불편한 남편 니덤을 대신하기도 했다. 두어 차례 니덤과 이야기를 나누려 생각도 했지만, 휴식 시간에 그에게 인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만 저만치서 그를 쳐다보는 것으로 그와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이제 내가 어찌 니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를 한번 한국에 초청하자고 우리끼리 말만 거듭하는 사이 그는 이미 초청하기 어려운 건강 속에 우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1954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그의 대표작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이미 거대한 업적으로 남아 있고, 또 아직 10년 뒤의 완성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니덤은 마음대로 말하고 쓰고 걸을 수 있는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81세의 니덤과 90세의 니덤의 차이에서 나는 여러가지 아쉬움을 가슴으로 느끼며 케임브리지를 떠났다.

머지 않아 우리는 모두 조지프 니덤을 기억 속에서만 그리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연구의 과정에서 시작했던 〈동아시아과학사도서관〉은 지금 이번 회의장 북쪽에 새로 세워 놓은 〈니덤研究所〉로 남게 되었다. 회의의 마지막 날 점심에는 이 연구소 남쪽 날개의 기공식이 있었다. 내년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동아시아科學史 연구의 세계본부로서 이 연구소의 자리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니덤의 노쇠와 함께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지난 2월 이 연구소의 새 소장으로는 중국계 학자인 호 평요크(Ho Peng-Yoke, 何丙郁)박사가 취임했는데 그는 이렇다 할 보수가 없이 소장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인사하며 순진한 어린이같은 활짝 웃는 모습을 보

이는 그는 한국에서 어떻게든 한국과학사 자료를 기증받았으면 좋겠다는 태도였다. 이미 소장 취임 직후 全相運교수에게 편지를 보내 그런 의사를 나타낸 일이 있고, 이번에도 우리들에게 은근하게 그런 눈치를 보였다. 실제로 여러가지 회의 운영의 실상을 보더라도 이 연구소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현재 중국과학사 일변도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일본과학사 분야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이 연구소에 어떻게든 우리 한국과학사 연구도 강화하는 노력이 우리 한국측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니덤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기도 한 이번 회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과학사 연구라는 좁은 시각이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8월 5일 저녁에는 오랜 격론 끝에 준비위원회가 구상했던 대로 〈동아시아 과학, 기술, 의학사 국제학회〉라는 긴 이름의 새 학회가 탄생했다. 별일없이 진행될 줄 알았던 창립총회는 뜻밖에 여러 분란이 없지 않았다. 특히 회장과 부회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표면화하지 않은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였다. 결국 미국의 네이산 시빈(Nathan Sivin)이 회장, 중국의 커 준(柯俊)이 부회장에 선임되었는데 커 준은 회의에 오지도 않은 인물 이어서 팩스로 수락 확인을 받아 다음날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간사에는 영국의 크리스토퍼 컬튼, 회계에 프랑스의 메테일레가 뽑혔다. 멋모르고 사회를 맡았던 일본의 나카야마 시게루교수가 진땀을 흘린 저녁 회의였다.

이들은 아직 다음회의 장소를 어디로 하며 언제 회의를 소집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했다. 아마 2년쯤 뒤에 파리 근처에서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또 그동안 시빈이 개인적으로 출판해 오던 「중국과학」(Chinese Science)을 새 학회의 기관지로 흡수하게 될 것 같은데, 새 학회지의 제목도 정한 일이 없다. 나는 全相運교수와 그후 이들 동안 런던에서 함께 지내면서, 새 학회지의 이름이 그대로 “중국”이란 제목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짐했다. 또 새 학회와 학회지에 한국과학사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도 다짐했다. 새로 구성된 학회는 당장 가입 회원을 모으고 회비를 걷었는데, 나도 일단 회비를 지불하여 이 학회의 회원이 되었다.

실제로 이번 학회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모두 한국과학사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일본과 그밖의 학자들이 대개 중국과학사를 소재로 발표한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그럴만큼 학자층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제학회에서 중국과학사를 소재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김영식교수 등 극소수의 예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도 중국과 일본과학기술사 전공자들을 길러가야 할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특히 이번 학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이미 서양과학사 학자로 정평이 있는 라탄시나 히버트 같은 서양학자들이 중국을 소재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두부와 국수에 관한 연구까지 발표되는 등 연구의 폭도 아주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있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학자로 한국과학사를 연구하겠다는 과학사학자가 제대로 나온 일은 없다.

한국과학사에 대해 외국인들이 관심갖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니덤研究所에 한국과학기술사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기증하고 또 가능하면 연구 장려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가지 한국과학사학계가 추진해야 할 일의 하나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번 창립된 〈동아시아과학사학회〉의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상운, 송상용교수와 나는 빠르면 4-5년 뒤의 회의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다.

중요한 학문적 모임인 것만은 틀림이 없 않지만, 회의의 구성이나 실제 이곳에 모인 학자들

의 생활환경은 대단히 삭막한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와는 너무나 달리 논문 한 편만 얻으려 해도 하나 하나 값을 내야만 하고, 내 경우에는 집으로 부쳤다면 내 몫의 논문들을 주지도 않았다. 새로 지었다는 로빈슨 컬리지는 하필 이번 여름따라 비가 없이 뜨거운 날씨만 계속되어 남향인 내 방은 낮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이 벽이 난로벽처럼 뜨겁기만 했다. 1주일 내내 회의장에서는 졸다가 밤이면 좀 시원해져 잠만하면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잠을 설치 버리는 고약한 경험만 하다가 런던으로 떠났다.

그러나 10분만 걸으면 도착하는 챔江에는 사진으로 잘 알려진 작은 배들이 떠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옷옷을 벗은 채 보트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운치있어 좋았다. 또 개울만한 그 강가로 이어지는 모든 거리가 그대로 대학이며 그것은 바로 박물관같은 건물이고 거리였다. 실제로 그 가운데 내가 찾아갔던 피츠윌리엄博物館과 휘플科學博物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피츠윌리엄은 비교적 작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데도 그곳에 있는 옛 예술작품이나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고고학적 유물들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였다. 특히 여기에는 한 방에 한국관이 마련되어 있고, 큰 태극선과 함께 아주 질 좋은 고려자들이 여럿 전시되었고, 특히 지름 30cm가 넘는 고려시대의 청동거울에 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귀중품도 보였다.

휘플科學博物館에서는 때를 맞춰서 동아시아 과학전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작은 과학 박물관에 한국에는 없는 18세기의 천문도가 제일 앞에 보라는 듯 전시되고 있었다. 8폭짜리 병풍으로 된 이 천문도의 첫 3폭에는 커다랗게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져 있고, 다음 두 폭에는 북반구의 별들, 그리고 다음 두 폭에는 남반구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 폭에는 행성과 해와 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 천문도에 대해서는 이미 니덤의 논문이 발표된 일이 있다. 앞에 소개한 그의 한국천문학사 관계 책에 이 논문이 다시 게재되어 있다. 이 박물관 학예관 베네틱박사는 이 천문도가 언제, 어떻게 이 박물관에 입수되었느냐는 내 질문에 잘 모른다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용을 대면 전문 사진사의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6일 회의가 끝나자 7일 나는 런던으로 가서 9일 서울로 출발했다. 그리고 8일 하루를 나는 혼자 과학박물관에서 지냈다. 케임브리지박물관들에서 느끼기 시작한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9년 전 루마니아에서 돌아와 찾았던 당시의 과학박물관에는 측우기가 있었던 것같은데, 이미 그것은 기상분야 전시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인쇄기술 쪽을 찾아가도 역시 작은 글씨로 “코리아”란 말이 있는 정도였다. 런던의 과학박물관에는 도대체 한국인들이 그리도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유산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셈이다.

또 이미 휘플에서 전시 중인 수십개의 동아시아 해시계 가운데 우리나라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 일본과 중국의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런던과학박물관의 1백개는 넘어 보이는 동아시아 해시계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그 많은 해시계들이 모두 일본이나 중국 것 뿐일까? 그 가운데 일부는 일본으로 흘러들어 갔던 조선시대의 것이 서양사람들에 의해 일본에서 수집된 것 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니덤研究所, 東아시아科學史學會, 그리고 科學博物館 등 과학사학도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네덜란드 비행기 KLM에 올랐다.